

## 안바루의 3 개 마을

### 구니가미

구니가미촌은 안바루 최북단에 있으며 안바루에서 가장 크고 가장 인구가 많은 마을로, 인구는 약 4,000 명입니다. 구니가미촌에는 오키나와섬에서 가장 높은 요나하다케 산(503m)과 해도 곶의 북쪽 끝 근처에 있는 해도다케산이 침식된 석회암이 형성한 우뚝 솟은 절벽과 울퉁불퉁한 지형이 가장 인상적인 자연 경관 중 하나입니다. 이 암석층은 오키나와 본섬을 형성하는 카르스트 지형의 전형적인 지형입니다. 구니가미촌은 안바루 마을 중 가장 산림이 울창하게 자라고 면적의 84% 이상이 산림으로 덮여 있지만 험난한 해안가의 도로로 나가면 다양한 아름다운 경관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몇 세기에 걸쳐서 지역 주민은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숯, 목재, 천연 염료인 류큐 쪽의 생산을 관리해 왔습니다. 구니가미촌에는 일본에서 유일하게 날지 못하는 새인 안바루쿠이나가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보호정책 덕분에 이 종의 개체수는 멸종 직전 상황에서 천천히 회복되는 중입니다.

### 오기미

오기미촌은 서해안의 해수욕장에서 중앙부의 산지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오기미촌은 인구가 약 3,000 명에 이르고 백세 이상 주민의 수가 많아서 ‘장수 마을’이라고도 불립니다. 안바루에 내리는 큰비는 이 마을의 숲에 있는 높이 10m 이상의 ‘타타키 폭포’로 흘러갑니다. 멧돼지로부터 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몇백 년 전에 건축된 이시가키(돌담)을 현지의 하이킹 코스를 따라 가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토바쇼라고 불리는 바나나 줄기로 엮은 천의 일종인 바쇼후 생산은 마을 여성들이 오랫동안 해 온 옛 전통입니다. 바쇼후는 공정에 시간과 수고를 들여 만들어집니다. 예전에 류큐 왕족이 입었고 현재도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시원한 착용감 덕분에 사랑받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내에서도 인기 있는 작고 향기가 좋은 밀감류 ‘시쿠와사’는 원래 오기미 석회암 산들 속에 자생하던 과일이었고 지금도 이 마을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일본 시쿠와사 총 생산량의 약 6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 히가시

히가시촌은 안바루에서 가장 면적이 작은 인구 1,000 명이 사는 마을입니다. 안바루의 남동 해안에 위치하고 근처 마을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푸르고 울창한 산림으로 덮인 산들이 이어집니다. 히가시촌의 게사시 만(慶佐次灣)에는 오키나와 본섬 최대 맹그로브 숲이 있습니다. 맹그로브 숲은 썰물에는 육지가 수면에 드러나고, 밀물에는 수면 밑으로 잠기는 해안 조간대에 서식하는 식물과 야생 생물의 독특한 생태계를 형성합니다. 숲의 끝을 따라 도로와 하구를 도는 카약 투어를 하면 맹그로브를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히가시촌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목재, 장작, 숯 생산을 위해 목재를 벌채하고, 벌채한 목재를 섬 안의 기타 산림이 적은 지역으로 운송하는 안바루 관습을 따랐습니다. 이 관습은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지속되어 이런 자원이 전쟁으로 파괴되었던 인프라를 재건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히가시촌은 일본 최대 파인애플 생산지이지만 망고와 채소 등 다른 작물과 파인애플을 먹여 키운 토종 흑돼지인 아구 돼지로도 유명합니다.